

야타케산 정상

이곳은 야타케(971m) 산 정상입니다. 야타케는 운젠의 초기 화산 활동인 30~15만 년 전 활동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북부에는 새로운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묘켄다케(1,333m)와 헤이세이신잔(1,483m) 등의 산들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헤이세이신잔은 시마바라반도에서 가장 높고 가장 젊은 산으로 1995년까지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북서부로는 치지와 단층의 명료한 단층애와 아름다운 다치바나완의 해안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쪽 방향으로는 눈앞에 노다케(1,142m)가 솟아 있고, 아리아케카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